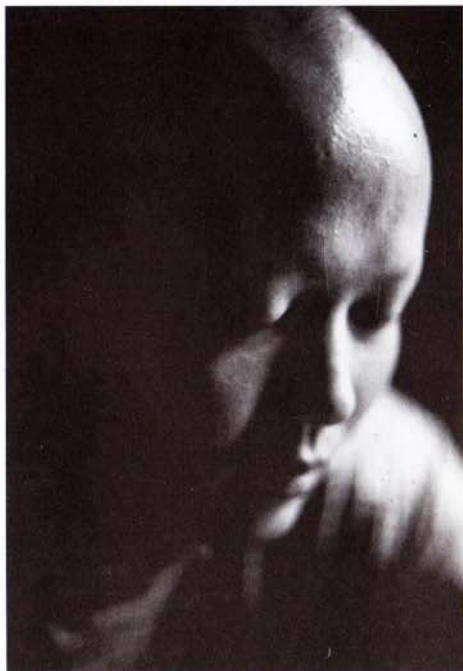


## 건축사 박열



어떤 사람을 전혀 아무런 선입견 없이 텅 빈 백지 같은 상태로 만나는 것은 알고 보니 좀 두려운 일이었다. 건축사 박열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도무지 그 사람의 실체가 잡히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이제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떤 경로로든 상대방의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처럼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가 제노바에서 건축사 학위를 받았다는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만날 적은 드물었다. 게다가 그는 내게 있어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세계와 내면을 스케치하고 읽어도 좋다고 허락받은 인터뷰 대상자였다. 나는 그를 만나고 왔으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내 가슴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차 우선은 박열의 대중적인 정보, 즉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코드를 모두 나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1973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1997년 광운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을 받았다. 2001년에 제노바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에 이탈리아 라이선스(건축사)를 획득했고 런던의 AA-Workshop, 네덜란드의 Architettura Workshop 등에서 수학했으며 2002년부터 이년간 한국의 공간(SPACE GROUP)에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박열의 수학의 궤적을 이토록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건축에의 열정을 내보임과 동시에 이탈리아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진정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걸어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훌쩍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제노바 대학의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께 제의를 받았습시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건축의 보고인 이탈리아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건축의 보고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건축에서 이탈리아는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에서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물론 말씀 하신대로 이탈리아는 현대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지요. 이탈리아는 건축에 대해 무한한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길거리를 그냥 걸어도 다녀도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원천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중요하합니다. 현대란 옛것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원형이 있었고 그것이 무한히 발전되어 온 셈이지요.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콜로세움입니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은 바라만보아도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마치 연인을 보듯이요. 콜로세움은 순수한 건축의 원형, 모태를 보는 듯합니다. 아무 장식이 없지만 거기 그렇게 우뚝 서있는 것만으로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수학하셨는데 각기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영국에서는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을, 네덜란드에서는 다국적 기업정신을 배웠습니다. 모두 다 배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도 이탈리아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비교를 좀 해주시지요. 사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대학 진학에 성공한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도달한 실력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평준화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 학생들은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깜작 놀랄 정도로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창의력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완전 몰입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온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소수의 천재들이 지금까지 이탈리아를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한국으로 좀 돌려볼까요? 공간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공간사육은 건축가 고 김수근 선생님의 역작으로 30년 넘게 한국 현대 건축사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곳에서 일해보신 소감은 어떨습니까? 정말 명성 그대로의 건물이었나요? 네, 확실히 그랬습니다.(웃음) 그 건물에서 일해 보면 정말로 열정과 담합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딩 사이에서 담쟁이덩굴이 휘덮은 벽돌집이며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계단 등 마치 생명체처럼 정말 사랑스런 건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도 김수근입니다.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이시죠. 그분의 실력적인 건축 철학처럼 그곳엔 아방가르드한 예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언뜻 생각나는 사람들만 해도 공옥진, 김덕수, 황병기, 홍신자등이 떠오릅니다. 건축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큰 그릇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내친김에 건축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은 생활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간단하네요? 저는 심오한 말은 모릅니다. 다만 생활과 동떨어진, 살아있는 건축이 아니라면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건축을 알기위해 한국의 좋아하는 건물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과 좀 다르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소쇄원입니다.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이지요. 결국 제가 가야할 길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로 한국의 정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그런 건물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계천 재개발-세운상가 블록 개발입니다. 공간에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청 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국제설계 현상 공모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청계천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휴식처가 된 것을 바라볼 때 매우 보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한국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공부한 뒤에 한국에서의 경험도 꼭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경험하고 냅을 때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로마 사피엔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TYPStudio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문외한인 저와 이야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박열과 헤어지고 나서야 그의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 글을 쓰지 못한 이유라는 것도 마침표를 찍는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오랜 시간 동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글/ 편집장 손영란

비  
원

# RISTORANTE COREANO

## BIWON

Via Conte Verde, 62  
00185 Roma Italia

Tel. 06 4457605  
Cel. 333 1821928

[www.romabiwon.com](http://www.romabiwon.com)

(Mercoledì Chiuso, 수요일 휴일)

한  
식  
전  
문